

자주의 철리, 민족의 넋을 새겨주시여

조선사람은 차림새도 행동도 조선사람의 맛이 나게 해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우리 민족의 아름다움과 고상한 미풍양속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빛내이도록 일꾼들을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체38(1949)년 4월 25일이었다.

이날 일꾼들과 함께 한 일꾼의 병문안을 하고 마당으로 나오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 는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부르시어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옷차림을 보니 봄기운이 확연합니다.》

그때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은 흰 저고리에 검정치마를 산뜻하게 받쳐입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환히 웃으시며 곁에 서있던 내각 문화선전상에게 물으시었다.

《어떻습니까?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동무의 옷차림새가 보기 좋습니까?》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동

무에게는 조선치마저고리가 잘 어울립니다.》

《조선치마저고리가 참 좋습니다. 치마저고리를 입으면 몸매가 늘씬하게 보입니다.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좋습니다.》

확실히 조선녀성들에게는 치마저고리가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수령님으로부터 과분한 평가를 받게 된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너무나 황송하여 얼굴을 붉히며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는 그러는 그를 한동안 대견히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우리자신들이 잘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기호에 따라 조선옷이나 양복을 입을 수 있다고, 머리단장도 나이와 취미, 머리생김새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하시며 그런데 지금 일부 녀성들

민족의 단합과 변명을 위한 길에서

한 해외동포가 찾은 인생전환의 길 (3)

평양방문후 립창영선생의 활동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만나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은 선생의 마음은 그의 위대한 애국애족의 위업을 만들어갈 의지로 충만되어 있었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재민동포들의 투쟁의 앞장에는 언제나 선생이 서있었다.

1977년 6월 선생은 반독재민주화투쟁단체들을 망라한 《민주민주국민련합》을 결성하고 의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1977년 8월부터 1981년까지는 《민주민족통일해의한국인련합》(《한민련》) 수석의장으로, 1981년부터는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1987년 8월부터 《민주

민련》을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조직한 《한겨레운동민주련합》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선생은 《한민련》결성모임에서 《죄없는 사람들에 대한 처형 등 박정희(정권)이 자행하고있는 기만과 폭력행위는 헤아릴수 없는것이며 이와 같은 사태의 시정도 본연의 사명》이라고 밝혔고 《해외한국인 민주운동대표자회의》에서 한 보고에서는 박정희(정권)이 떠벌이는 《공산침입의 위협은 종신집행을 누리려고 하는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폭로하였다.

선생은 미국이 박정희(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것을 요구



반과소민주화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의 대학생들

무모하고 비렬한 반공화국, 반총련소동

최근 일본에서 반공화국, 반총련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섬나라것들은 지난 11월 3일 공화국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일본령도상공을 통과했다고 사실을 오도하면서 미야기현과 야마가타현, 니이가타현에 경보체제를 가동시키는것과 함께 언론보도를 통하여 반공화국여론을 대대적으로 류포시키고 있다.

일본것들은 지난 2월과 3월에도 남조선미국일본외교장관회의와 합참의장회의에서 공화국의 군사적조치들에 대응하여 조선반도주변에서 남조선미국일본합동군사연습을 벌릴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였으며 지난 9월 30일에는 조선동해상에서 미국, 남조선호전광들과 대규모의 련합함정합동훈련을 벌려놓았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미핵항공모함 《로널드 레간》호 라격집단을 끌어들여 조선 동해에서 남조선미국일본해상련합훈련을 또다시 감행하였다.

그러나 하면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이 벌린 사상 최대규모의 《비질런트 스톰》 련합공중훈련에 일본 이와구니미군기지의 스텔스전투폭격기 《F-35B》를 비롯한 수 많은 전투기들이 참가하도록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었다.

한편 일본반동들은 조선학교와 학생들, 총련기관들에 대한 협박, 폭행, 폭언사건들을 련이어 일으키고있다.

이것은 섬나라족속들이 미국, 남조선호전광들과 함께 공화국을 암살하기 위한 전쟁범죄에 광분하면서 반공화국, 반총련, 조선인배타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섬나라것들이 입에 거저품을 물고 결코드는 공화국의 군사적조치들로 말하면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 일본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침략책동으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생을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조치이다.

일본반동들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반공화국전쟁책동에 가담하지 않는다면 공화국의 군사작전을 놓고 위협을 느낄 아무런 리유도 없다. 도박이 제 발자욱에 놀란다고 《북핵 및 미사일위협》에 대해 떠드는 섬나라족속들의 행위는 저들이 벌리는 대조선적대시책동에 따른 과도한 피해의식으로부터 출발한 히스테리적광태이다.

그리고 반공화국, 반총



일본반동들은 총련기관들에 대한 강제수색을 감행하였다.

절세위인들과 총련대를 이어 전해가는 아버지사랑

오랜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많은것이 사라지고 잊혀지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고 대를 이어가며 영원히 전해지는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총련일꾼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돌려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하늘같은 은정이다.

지난 8월 총련 요코하마조선초급학교에서는 교직원, 학생들과 재일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이 학교 학생들에게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에 감사하는 모임이 진행되었다.

지금으로부터 50년전인 주체61(1972)년 8월 18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평양학생소년궁전극장에서 여름방학을 리용하여 조국을 방문한 도교조선중고급학교 추주소조와 요코하마조선초급학교 음악무용소조원들을 만나주시었다.

궁전극장에 이르신 아버지수령님께서 는 북받쳐오르는 격정을 이기지 못하여 목메어 민선의 환호를 울리며 품에 안기는 재일청소년학생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면서 울지 말라고, 대장부가 울면 되느냐고 달래시었다. 그러시면서 세계대검으로

들러서있는 어린이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고 두볼을 감싸주시고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아이들이 모두 똑똑하고 예쁘게 생겼다고 칭찬하시며 이름은 무엇이고 나이는 몇살인가, 아버지, 어머니들은 다 잘 있는가고 일일이 물어주시었다.

이어 재일동포들의 어린이들까지 이렇게 집단적으로 조국땅을 찾아오게 된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조국의 형편과 사회주의건설성공에 대하여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이날 재일청소년들은 아버지수령님께 드리는 자기들의 다짐같은 호모와 감사의 정을 다채로운 춤과 노래에 담아 무대어울렸다.

공연이 끝나자 아버지수령님께서 는 그들에게 꽃바구니를 전하시고 친히 무대에 오르시어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그리신 후 자신의 존함이 새겨진 손목시계를 그들모두에게 수여하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는 손수 함을 여시고 시계에 흠집이라도 있을세라 다시 살펴보신 다음 어린이들의 손에 하나하나 쥐어주시면서 내가 등무들에게 주는 이 시계

는 기념으로 차고다니라고, 시계 끈이 커서 아이들에게는 안맞을 수도 있는데 잘 보관하였다가 큰 다음에 차도 된다고 은정깊은 교시를 하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는 그러시고도 부족하신타 이를후에 그들에게 또다시 사랑어린 귀중한 선물들을 안겨주시었다.

학생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받아안은 선물가운데는 자나깨나 그리운 아버지수령님의 탁상헌형초상화와 립제사건 《만경대고향집》을 비롯하여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화첩 그리고 인상과 사랑, 과거, 오감, 구두, 녀학생들을 위한 다색단과 목수건 등이 들어있었으며 여러가지 민족악기들과 그들이 다니는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보내시는 5 000권의 고급학습장과 1만자루의 연필까지 들어있었다.

총련일꾼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배풀어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은정을 전하는 이야기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총련일꾼들은 오랜 기간 이국 땅에서 조국을 그리워하며 살고있다고, 조국의 흠새가 나는 시골마을들이 좋다고 하시며 그들에게 인사도 보내주고 꼴도 보

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뜻깊은 명절마다 사랑의 선물들을 가슴가득 안겨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이시다.

언제인가는 친히 총련일꾼자녀들의 합숙을 찾으시어 그들의 학습과 생활을 육친의 정으로 보살펴주시고 설명절을 비롯한 기념일에는 귀중한 사랑의 선물도 보내주시었으며 처음 재일동포들의 조국방문단이 《만경봉》호를 타고 조국에 왔을 때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기념으로 필한 물건을 몇가지 주면 되지만 이국땅에서 고생하며 싸우는 우리 동포들인데 무엇을 아끼겠는가 하시면서 친히 선물명세에 인상을 더 넣도록 하여주시었다.

진정 총련일꾼들과 해외동포들, 그들의 자녀들까지 모두 한 품에 안으시어 사랑과 은정만을 쏟아부으신 아버지수령님이시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민족교육사업을 애국사업의 제1순위에 놓고

도교지역의 녀성동맹조직들이 조선학교 학생수를 결정적으로 늘리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다.

총련 도교조선제9초급학교를 맡은 녀성동맹지부에서는 지역의 학생전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특색있는 활동을 벌

리고있다. 우리말쓰기, 수수께끼, 틀린그림찾기 등 지능개발에 필요한 내용들이 수록된 문제집들을 학생전어린이들이 있는 가정들에 보내주는것이다.

민족교육에 힘을 넣어 문제집의 내용들은 아이들의 심리특성에 맞게 짜여져 있다. 이 사업은 약성전연명의 대류행으로 하여 여러 행사가 열리지 못하게 된 조건에서 이곳 지부일꾼들이 착상

한것이다. 어린이들모두가 문제집을 끝내고는 새 문제집이 도착하기를 손꼽아 기다린다고 한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들의 기쁨도 크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꼭 민족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애국의 의지를 심어주며



민족교육의 회원에서 역세게

총련 이바라기조선초중고급학교에서는 해마다 고급부 학생들의 대상으로 《진정한 조선사람의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진행된다. 학생들이 언제나 조국을 몸가까이 느끼게

리란 정세, 《우리의 미래》로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 벌리는 활동이다.

《우리의 력사》, 《우리를 둘러싼 정세》, 《우리의 미래》로 주제를 가지고 토론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강성비약하는 어머니조국에 대한 사랑을 격정

속에 토로하며 애국의 결의를 다진다.

《애국의 길에서 삶의 보람을 찾겠다.》, 《조국과 동포사회를 위한 길에서 청춘을 빛내겠다.》... 본사기자

《인권유린하는 일본정부 규탄한다》, 《합동전쟁연습을 중단하라》

-미국에서 일본정부와 윤석열역적패당을 규탄하는 시위진행-

보도에 의하면 얼마전 6.15공동선언실천 뉴욕위원회(6.15뉴욕위원회)가 재일동포학생들을 차별하는 일본정부의 민족차별정책과 인권유린행위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리었다.

시위에는 《뉴욕홍사단》, 《뉴욕민화협》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일본정부가 고교무상화정책을 실시하면서 유독 조선학교만을 제외시키고 유치원과 보육원도 무상화하면서 재일동포만 제외시키는데 이어 약성비루스감염증 사태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에

게 보조금을 지불하면서도 조선대학교 학생들은 그 대 상에서 제외한데 대해 언급 하였다.

그들은 일본정부가 보편적 인권인 교육평등을 위반하고있으며 약절적인 민족차별 정책에 대탈리고있다고 하면서 이는 명백한 인권유린이며 유엔인권조약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규탄하였다.

참가자들은 뉴욕동포들은 일본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굴하지 않고 투쟁하는 재일 조선인들에게 굳은 연대성을 보내며 일본정부의 차별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함께 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일본정부를 규탄하는 시위진행

이어 그들은 《조선학교 차별하는 일본정부 규탄한다》, 《민족차별하는 일본정부 규탄한다》, 《인권유린하는 일본정부 규탄한다》, 《고교무상화 즉각 적용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뉴욕주재 일본총영사관앞에서 시위를 벌리었다.

한편 참가자들은 뉴욕주재 남조선총영사관앞에서 사대매국행위를 일삼으며 북침전쟁도발책동에 미처달뛰는 윤석열역적패당을 규탄하는 시위로 전개하였다.

그들은 최근 미전략자신이 조선반도에 전개되고 련이 대규모합동군사연습들의 강행으로 조선반도정세가 점점 정경으로 치닫고있는 가운데 남조선해군은 일본이 주최하는 《관함식》에 참가한데 대해 언급하고 지금 윤석열(정권)에 대한 동포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남조선미국일본의 합동전쟁연습과 전쟁반대연대사가 발표되고 윤석열역적패당을 규탄하는 시위가 진행되었다.

본사기자